

청소년의 미디어 활용 능력과 비판적 미디어 이해 능력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인지욕구의 매개효과¹⁾

김 다 솔²⁾

대전새미래중학교

〈요 약〉

이 연구는 한국 미디어패널 2020의 자료를 활용하여 청소년의 미디어 활용 능력, 자아존중감, 인지 욕구가 비판적 미디어 이해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 결과 PC 활용 능력과 스마트기기 활용 능력은 청소년의 비판적 미디어 이해 능력에 영향을 주었다. PC,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인터넷 활용 능력과 비판적 미디어 이해 능력 사이에서 인지 욕구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였고, PC와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이메일 활용 능력과 비판적 미디어 이해 능력 사이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였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의 비판적 미디어 이해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PC와 스마트기기 활용 능력을 높이는 동시에 PC와 스마트기기를 교육적인 상호작용의 도구로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보 및 기술 교과는 인지 욕구를 높일 수 있는 미디어 활용 능력 중심의 교육이 효과적일 수 있으며, 그 외의 교과에서 미디어를 활용한 협동학습이 바람직하다.

주제어 : 한국 미디어 패널조사, 인지 욕구, 자아존중감, 비판적 미디어 이해능력

1) 이 연구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개최한 제9회 한국미디어패널 학술대회에서 발표자료를 수정·보완한 논문임.

2) 교신저자, losad721@naver.com

I. 서론

스마트폰이 도입되기 직전인 2007년 우리나라 가구의 73%가 유료 종이신문을 구독하였으며, TV에서도 지상파 채널이 주요한 대중에게 가장 익숙한 매체였다(최재봉, 2019). 하지만, 2009년 스마트폰이 우리나라에 처음 등장한 이후로 엄청난 속도로 보급되었으며, 스마트폰은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면서 TV나 신문보다 더 중요한 매체로 자리를 잡았다. 실제로 2020년 우리나라 인구의 93.9%가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상에서 꼭 필요한 매체가 ‘스마트폰’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67.2%였지만 ‘TV’라고 응답한 사람은 29.5%, ‘신문’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0.2%에 불과했다(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21a).

신문이나 TV가 주요 매체였던 시절에는 정보를 가진 소수가 대중에게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달했지만,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며 누구나 정보를 소유, 가공,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더욱이 SNS(Social Networking Service)와 OTT 서비스(Over-the-top media service)가 대중화되면서 대중들이 정보를 접할 기회는 더 많아졌으며, 그 형태도 다양해졌다.

이런 현상은 소수의 전문가가 정보를 생산하던 중앙집권적인 정보 권력의 형태에서 집단지성을 통해 대중에게로 정보 권력이 분산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이석용, 정이상, 2010). 그 결과 대중들이 다양한 사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사회의 다양성을 높일 수 있지만, 부작용도 있다. 대표적으로 가짜뉴스가 범람하게 되면서 뉴스를 신뢰할 수 없게 되었으며, 사회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성인의 경우 확증 편향적으로 뉴스를 소비하며 자신의 주장을 점점 확고하게 하여 극단적인 사고를 유발할 수 있지만, 청소년의 경우 가짜뉴스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자신의 사고를 바꿀 수 있다(안도현, 2020). 가짜뉴스와 같이 검증되지 않은 정보는 청소년에게 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이 이런 가짜뉴스 속에서 유용한 정보를 찾아내고 가짜뉴

스에 대응하는 능력을 길러줘야 한다. 학자들은 이런 능력을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 뉴스 리터러시(News Literacy), 비판적 미디어 이해 능력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이용준, 권이은, 2020; 허윤철, 2020; 홍남희, 2021). 학자들에 따라 용어를 다르게 사용하고 있지만, 미디어 리터러시가 가짜뉴스가 범람하는 현실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역량이라는 것에는 모두 동의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올바른 정보를 수용하여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고 미디어를 건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미디어 활용 능력, 자아존중감, 인지 욕구가 비판적 미디어 이해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고 한다. 이미 선행연구에서 이주형, 김기연(2021)은 노인들의 인지욕구를 자극하면 비판적 미디어 이해능력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심미선(2019)은 미디어 이용행태에 연령과 자아존중감이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미디어 활용 능력, 자아존중감, 인지 욕구, 비판적 미디어 이해 능력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한 뒤, 한국미디어패널조사 2020의 자료를 활용하여 변인 간의 관계를 알아보려고 한다. 이를 통하여 청소년의 비판적 미디어 이해 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수행되어야 할 교육적인 노력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위해 설정한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문제1. 미디어 활용 능력은 비판적 미디어 이해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문제2. 자아존중감, 인지 욕구는 미디어 활용 능력과 비판적 미디어 이해 능력 사이에 어떠한 매개효과를 보이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의 미디어 리터러시와 미디어 활용 능력

미디어 활용 능력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미디어의 의미를 분명히 해야 한다. 미디어는 인쇄매체와 같은 전통적인 매체부터 TV, 신문과 같은 대중매체,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뉴미디어 등 다양한 정보 전달 형태로 제작된 콘텐츠를 뜻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김현진 외, 2019).

미디어 활용 능력을 미디어 리터러시의 하위 개념으로 접근한 연구로는 김경희, 김광재, 이숙정(2017)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의 하위 개념으로 접근과 조절, 비판적 이해, 창의적 활용, 책임과 권리로 구분하였다. 이중 접근과 조절은 이용 목적에 따라 미디어를 선택하고, 콘텐츠에 접근하기 위해 한 의도하지 않은 콘텐츠에 대한 노출을 조절하기 위해 요구되는 기본적인 조작적 기술로 정의하였으며, 미디어 활용 능력은 미디어 접근 능력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홍남희(2021)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접근, 분석, 평가, 창작으로 구성된 네 가지 역량에 기반한 것으로 보았으며, 이중 접근은 기술에 대한 활용 능력과 접근 가능성 등의 도구적 역량으로 보았다. 이 의견을 바탕으로 미디어 활용 능력을 미디어를 도구적으로 이용하여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청소년들은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라고 불릴 만큼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 기기와 온라인공간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청소년의 미디어 활용 능력을 정의할 때 PC와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미디어 활용 능력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인지욕구와 미디어 리터러시

인지욕구란 정보처리를 고무시키는 내적 동기를 의미한다. 즉, 생각하기를 즐기고 인지적 노력을 기울이려는 정도를 의미하는데(박희량, 2010), 인지욕구가 높을 경우 미디어 리터러시도 긍정적이라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최인호 외(2018)는 소득, 연령, 인지욕구가 미디어 리터러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소득이 증가하고 연령이 감소할수록 미디어 리터러시가 증가하며, 인지욕구는 미디어 리터러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특징적인 것은 소득으로 인한 미디어 리터러시에 인지욕구가 매개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인지욕구가 증가할수록 미디어 리터러시 격차가 줄어들게 되지만, 연령에 따른 미디어 리터러시에는 인지욕구가 매개효과를 가지지 못했다. 즉, 인지욕구는 미디어 리터러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소득으로 인한 미디어 리터러시 격차를 극복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유사한 연구로 이주형, 김기연(2021)은 노인을 대상으로 교육수준과 비판적 미디어 이해능력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교육수준과 비판적 미디어 이해능력은 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 연구에서도 역시 인지욕구는 교육수준과 비판적 미디어 이해능력 사이에 매개효과를 가져 인지욕구가 높을 경우 교육수준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판적 미디어 이해능력 격차를 줄여주었다.

이와 연구는 20대-60대 성인, 노인을 대상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청소년의 미디어 활용능력과 비판적 미디어 이해능력 사이에서 인지욕구가 가지는 매개효과를 알아보는 데는 제한이 있다. 연령에 따른 미디어 리터러시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청소년의 미디어 리터러시는 성인과 다른 특징을 가질 수 있다

3. 자아존중감과 미디어 리터러시

자아존중감란 자신에 대해 가지는 지각, 관념, 태도 등의 독특한 체계를 의미한다(유두련, 2014). 자아존중감과 미디어 리터러시 사이의 연구는 주로 미디어 중독과 같은 문제행동을 중심으로 연구되어왔다.

이은숙, 이경순(2018)은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소셜미디어 중독 경향성이 높다는 것을 밝혀냈으며, 심미선(2019)은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오락 장르의 미디어를 소비하며, 인터넷동호회, 인터넷 토론, 온라인 참여, 온라인 지식생산, SNS활동 등에 더 적극적이라고 하였으며, 인터넷과 관련된 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연령과 자아존중감을 들었다. 또, 김영미, 박윤조(2021)는 초등학생의 미디어중독의 요인으로 낮은 자존감과 학교생활, 학업 수행, 또래 및 교사와의 관계에서의 어려움을 들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로 보아 자아존중감이 낮을 경우 미디어를 오락으로 소비하고, 미디어 중독과 같이 미디어의 부정적인 영향에 놓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비판적 미디어 리터러시를 포함한 미디어 리터러시를 높이기 위해서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한 교육적 노력을 알아봐야 한다.

4. 학교 교육과정 중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미디어 리터러시가 미래 사회의 필수 역량이자 기본권으로 강조되고 있으므로 학교 교육과정을 통한 다양한 미디어 교육이 실천되고 있다. 미디어 교육은 별도의 교과를 통해서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동아리나 자유학기제 등 학생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거나 보편적인 교육으로 교과교육 및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진다(장은주, 2020).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 중 교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미디어 교육은 국어, 사회, 도덕, 실과(기술·가정), 정보, 미술 교과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국어 교

과에서는 매체를 활용하여 발표하거나 매체의 효과를 판단하며 듣기, 매체를 이해하고 매체를 찾아보기, 매체를 선정하고 윤리를 지키며 쓰기 등의 영역이 있으며, 사회 교과에서는 매체를 통해 자료를 조사하고 삶이나 문화를 이해하고 평가하는 내용을 다루고, 도덕 교과에서는 정보화 시대의 도덕적 책임과 사이버 공간에서 지켜야 할 예절과 법 등을 다루고 있다.

실과(기술·가정)교과에서는 사이버 중독 예방, 지식 재산 보호 등의 내용을 다루고 통신매체의 종류와 특징을 이해하고, 정보통신과 관련된 문제를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문제해결 과정 등을 다루며, 정보 교과에서는 정보기술 발달에 따른 정보문화, 자료와 정보를 표현하고 수집, 관리하는 능력, 문제해결을 위한 알고리즘을 다루는 방법 등을 다룬다.

미술에서는 이미지 자료를 체험하고 그 의미와 느낌, 생각을 알아보며, 시각적인 이미지를 전달하고 활용하는 능력과 다양한 자료를 통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방법 등을 다룬다. 교과별로 세부적인 영역과 성취기준은 아래 <표 1>과 같다.

다양한 교과에서 미디어 리터러시를 다루고 있지만, 국어, 사회, 도덕, 미술 교과는 미디어를 주로 교과 활동을 위한 매체로 보고 있으며, 실과(기술·가정), 정보 교과 정보통신기술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 미디어를 사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직접 다룬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기술 교과 및 정보 교과에서 수행할 수 있는 교육적 노력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표 1>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미디어 교육 내용

| 과목 | 영역 | 성취기준 |
|--|------------------|---|
| 국어 (교육부, 2015a) | 듣기· 말하기 | [6국01-05] 매체 자료를 활용하여 내용을 효과적으로 발표한다. |
| | | [9국01-11] 매체 자료의 효과를 판단하며 듣는다. |
| | 읽기 | [6국02-05] 매체에 따른 다양한 읽기 방법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적용하여 읽는다. |
| | | [9국02-07] 매체에 드러난 다양한 표현 방법과 의도를 평가하며 읽는다. |
| | | [9국02-08] 도서관이나 인터넷에서 관련 자료를 찾아 참고하면서 한 편의 글을 읽는다. |
| | 쓰기 | [6국03-02] 목적이나 주제에 따라 알맞은 내용과 매체를 선정하여 글을 쓴다. |
| | | [9국03-01] 쓰기는 주제, 목적, 독자, 매체 등을 고려한 문제 해결 과정임을 이해하고 글을 쓴다. |
| | | [9국03-08] 영상이나 인터넷 등의 매체 특성을 고려하여 생각이나 느낌, 경험을 표현한다. |
| | | [9국03-10] 쓰기 윤리를 지키며 글을 쓰는 태도를 지닌다. |
| | | [9국03-11] 다양한 매체 특성을 고려하여 글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발표한다. |
| 사회 (교육부, 2018) | 우리가 살아 가는 곳 | [4사01-02] 디지털 영상 지도 등을 활용하여 주요 지형지물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지도에 다시 배치하는 활동을 통하여 마을 또는 고장의 실제 모습을 익힌다. |
| | | [4사01-06] 옛날과 오늘날의 통신수단에 관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통신수단의 발달에 따른 생활 모습의 변화를 설명한다. |
| | 다양한 삶의 모습과 변화 | [4사04-05] 사회 변화(저출산·고령화, 정보화, 세계화 등)로 나타난 일상 생활의 모습을 조사하고, 그 특징을 분석한다. |
| | 문화의 이해 | [9사(일사)02-03] 대중매체와 대중문화의 의미와 특징을 이해하고, 대중 문화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태도를 가진다. |
| 도덕 (교육부, 2015b) | 타인과의 관계 | [6도02-01]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대한 도덕적 민감성을 기르며, 사이버 공간에서 지켜야 할 예절과 법을 알고 습관화한다 |
| [9도02-05] 정보화 시대에 요구되는 도덕적 자세와 책임의 도덕적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고, 타인 존중의 태도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다 | | |
| 실과 (기술· 가정) (교육부, 2020) | 기술활용 | [6실05-05] 사이버 중독 예방, 개인 정보 보호 및 지식 재산 보호의 의미를 알고 생활 속에서 실천한다. |
| | | [9기가04-17] 다양한 통신 매체의 종류와 특징을 이해하고 활용한다. |
| | 기술시스템 | [9기가04-18] 정보 통신 기술과 관련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책을 창의적으로 탐색하고 실현하며 평가한다 |

| 과목 | 영역 | 성취기준 | |
|---|-----------------------|---|--|
| 정보 (교육부, 2020) | 정보문화 | [9정01-01] 정보기술의 발달과 소프트웨어가 개인의 삶과 사회에 미친 영향과 가치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직업의 특성을 이해하여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탐색한다. | |
| | | [9정01-02] 정보사회 구성원으로서 개인정보와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개인정보 보호, 저작권보호 방법을 실천한다. | |
| | | [9정01-03] 정보사회에서 개인이 지켜야 하는 사이버 윤리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사이버 폭력 방지와 게임·인터넷·스마트폰 중독의 예방법을 실천한다. | |
| | 자료와정보 | [9정02-01] 디지털 정보의 속성과 특징을 이해하고 현실 세계에서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표현되고 있는 자료와 정보를 디지털 형태로 표현한다. | |
| | | [9정02-02] 인터넷,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활용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관리한다. | |
| | | [9정02-03] 실생활의 정보를 표, 다이어그램 등 다양한 형태로 구조화하여 표현한다 | |
| | 추상화와 알고리즘 | [9정03-04]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법과 절차를 탐색하고 명확하게 표현한다 | |
| | 미술 (교육부, 2015c) | 체험 | [4미01-02] 주변 대상을 탐색하여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낼 수 있다. |
| | | | [6미01-03] 이미지가 나타내는 의미를 찾을 수 있다. |
| [6미01-04] 이미지를 활용하여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전달할 수 있다. | | | |
| 표현 | | [9미01-02] 시각 문화 속에서 이미지의 다양한 전달 방식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 | |
| | | [6미02-03]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아이디어와 관련된 표현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다. | |
| | | [9미02-05] 표현 매체의 특징을 알고 다양한 표현 효과를 탐색할 수 있다. [9미02-06] 주제와 의도에 적합한 표현 매체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다. | |

출처 : 장은주 (2020).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미디어교육 관련 성취기준 분석 연구. 새국어교육, 125, 39-68.의 표를 연구자가 재구성.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에서는 ‘2020년 한국 미디어패널 조사’에 참여한 사람 중 만 13세~19세 청소년 701명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대상을 추출하였으며, 표본의 성별, 나이, 지역적 배경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연구의 대상

| 항목 | 구분 | 빈도(명) | 비율(%) | 항목 | 구분 | 빈도(명) | 비율(%) |
|----|----|-------|-------|----|-----|-------|-------|
| 성별 | 남 | 362 | 51.6 | 지역 | 서울 | 86 | 12.3 |
| | 여 | 339 | 48.4 | | 부산 | 30 | 4.3 |
| 나이 | 13 | 104 | 14.8 | | 대구 | 42 | 6.0 |
| | 14 | 127 | 18.1 | | 인천 | 71 | 10.1 |
| | 15 | 122 | 17.4 | | 광주 | 23 | 3.3 |
| | 16 | 140 | 20.0 | | 대전 | 26 | 3.7 |
| | 17 | 95 | 13.6 | | 울산 | 24 | 3.4 |
| | 18 | 105 | 15.0 | | 경기 | 213 | 30.4 |
| | 19 | 8 | 1.1 | | 강원 | 31 | 4.4 |
| | | | | | 충북 | 16 | 2.3 |
| | | | 충남 | | 22 | 3.1 | |
| | | | 전북 | | 20 | 2.9 | |
| | | | 전남 | 17 | 2.4 | | |
| | | | 경북 | 34 | 4.9 | | |
| | | | 경남 | 20 | 2.9 | | |
| | | | 제주 | 21 | 3.0 | | |

2. 연구모형

이 연구에서 미디어 활용 능력이 비판적 미디어 이해 능력에 미치는 영향과 인지 욕구, 자아존중감이 미디어 활용 능력과 비판적 미디어 이해 능력 사이에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구성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연구모형 1>을 통해서 PC 활용 능력 및 스마트기기 활용 능력이 비판적 미디어 이해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연구모형 2>를 통해서는 인지욕구의 미디어 활용 능력과 비판적 미디어 활용 능력 사이에서 매개효과를, <연구모형 3>을 통해서는 자아존중감의 미디어 활용 능력과 비판적 미디어 활용 능력 사이에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3. 측정 도구

이 연구에서 미디어 활용 능력이 비판적 미디어 이해 능력에 미치는 영향과 인지 욕구, 자아존중감이 미디어 활용 능력과 비판적 미디어 이해 능력 사이에 조절효과와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21b)의 한국미디어패널조사 문항 중 <표 3>과 같이 문항을 추출하여 측정용 도구로 사용하였다.

<표 3> 측정도구

| 영역 | 구분 | 항목수 | 내용 | Cronbach's |
|--------------------|-------------------------|-----|--|------------|
| 미디어 활용능력 | PC활용능력 | 21 | 데스크탑 PC 또는 노트북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 (동영상: 2문항, 인터넷: 10문항, 이메일: 4문항, 기타: 5문항) | .945 |
| | 스마트기기 활용능력 | 26 |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및 태블릿 PC)를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 (문자 메시지/인스턴트 메신저: 5문항, 인터넷: 10문항, 이메일: 4문항, 기타: 7문항) | .942 |
| 비판적 미디어 이해능력 | 미디어콘텐츠 구분 능력 | 6 | 미디어 콘텐츠의 속성을 이해하고 콘텐츠의 유형을 분류할 수 있는 능력 | .946 |
| | 인터넷 정보 검색 활동 | 10 | 인터넷 정보의 정확성, 신뢰성, 타당성, 편향성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 | .953 |
| | 미디어 및 미디어 메시지에 대한 생각 | 6 | 미디어의 현실 구성과 재현방식이 갖는 문제점과 한계를 파악하는 능력 | .862 |
| | 미디어 내용에 대한 평가 | 6 | 미디어 내용의 편향성을 파악하고 문제를 파악하는 능력 | .920 |
| | 미디어산업과 규제에 대한 이해 | 9 | 미디어 소유구조와 규제기관이 미디어 내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 | .939 |
| 인지욕구 | 인지욕구 | 15 | 개인이 사고에 참여하고 즐기는 성향 | .851 |
| 자아존중감 | 자아존중감 | 10 | 개인이 지각하고 있는 자신에 대한 느낌, 평가 및 자기수용 수준 | .931 |

측정도구는 2020년 한국 미디어패널 조사의 설문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미디어 활용 능력은 PC또는 스마트기기를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정도를 스스로 Likert 5점 척도에 따라 응답하였으며, 신뢰도는 PC활용능력이 .945, 스마트기기 활용능력이 .942로 나타났다. 비판적 미디어 이해능력은 응답자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정도를 Likert 5점 척도에 따라 응답하였으며, 신뢰도는 미디어 콘텐츠 구분능력 .946, 인터넷 정보검색 활동 .953, 미디어 및 미디어 메시지에 대한 생각 .862, 미디어 내용에 대한 평가 .920, 미디어산업과 규제에

대한 이해 .939로 나타났다. 인지욕구는 응답자가 스스로 자신을 잘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곳을 Likert 4점 척도에 따라 응답하였으며, 신뢰도는 .851로 나타났다. 15개 문항 중 부정문으로 이루어진 4개의 문항은 역배점으로 계산하여 인지욕구가 높을수록 점수가 높아지도록 조정하여 사용하였다. 자아존중감은 응답자가 스스로에 대한 자신을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곳을 Likert 4점 척도에 따라 응답하였으며, 신뢰도는 .931로 나타났다. 10개 문항 중 부정문으로 이루어진 4개의 문항은 역배점으로 계산하여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점수가 높아지도록 조정하여 사용하였다.

IV. 연구 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

이 연구에서 활용한 분석대상자 701명의 자료에서 PC 활용 능력(동영상 활용 능력, 인터넷 활용 능력, 이메일 활용 능력, 기타 활용 능력), 스마트기기 활용 능력(문자메시지/인스턴트메신저 활용 능력, 인터넷 활용 능력, 이메일 활용 능력, 기타 활용 능력), 비판적 미디어 이해 능력, 인지 욕구, 자아존중감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상관관계를 산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측정도구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결과

| 순 | 구분 | M | SD | 상관계수 | | | | | | | | | | | | | | | |
|----|------------------------|-------|-------|---------------------|---------------------|---------------------|---------------------|---------------------|---------------------|---------------------|---------------------|---------------------|---------------------|--|--|--|--|--|--|
| |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 | | | |
| 1 | PC 활용 능력 | 동영상 | 4.242 | 0.860 | | | | | | | | | | | | | | | |
| 2 | | 인터넷 | 3.755 | 0.782 | .53 ^{***} | | | | | | | | | | | | | | |
| 3 | | 이메일 | 4.189 | 0.907 | .52 ^{***} | .63 ^{***} | | | | | | | | | | | | | |
| 4 | | 기타 | 3.537 | 1.060 | .53 ^{***} | .73 ^{***} | .60 ^{***} | | | | | | | | | | | | |
| 5 | 스마트 기기 활용 능력 | 메시지 | 4.726 | 0.488 | .47 ^{***} | .31 ^{***} | .35 ^{***} | .24 ^{**} | | | | | | | | | | | |
| 6 | | 인터넷 | 3.985 | 0.708 | .43 ^{***} | .79 ^{***} | .58 ^{***} | .60 ^{***} | .44 ^{***} | | | | | | | | | | |
| 7 | | 이메일 | 4.208 | 0.990 | .40 ^{***} | .58 ^{***} | .78 ^{***} | .59 ^{***} | .40 ^{***} | .66 ^{***} | | | | | | | | | |
| 8 | 기타 | 3.786 | 0.956 | .52 ^{***} | .70 ^{***} | .62 ^{***} | .78 ^{***} | .30 ^{***} | .72 ^{***} | .70 ^{***} | | | | | | | | | |
| 9 | 인지 욕구 | 2.730 | 0.492 | .008 | .19 ^{***} | .106 [*] | .13 ^{**} | -.016 | .167 ^{***} | .117 ^{**} | .137 ^{**} | | | | | | | | |
| 10 | 자아존중감 | 3.565 | 0.411 | .169 ^{***} | .172 ^{***} | .233 ^{***} | .15 ^{**} | .179 ^{***} | .142 ^{***} | .194 ^{***} | .138 ^{***} | .333 ^{***} | | | | | | | |
| 11 | 비판적 미디어 이해 능력 | 2.928 | 0.575 | .217 ^{**} | .471 ^{***} | .388 ^{***} | .379 ^{***} | .182 ^{**} | .442 ^{***} | .392 ^{***} | .445 ^{***} | .382 ^{***} | .289 ^{***} | | | | | | |

p<0.01, *p<0.001

PC 활용 능력은 5점 만점에 평균 3.537~ 4.242의 분포를 보였으며, PC 동영상 활용 능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타 활용 능력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스마트기기 활용 능력은 5점 만점에 평균 3.786 ~ 4.726 사이의 분포를 보였으며, 문자메시지/인스턴트 메신저 활용 능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 활용 능력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PC 활용 능력보다 스마트기기 활용 능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 욕구는 4점 만점에 평균 2.730로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은 4점 만점에 평균 3.565으로 인지욕구보다 높게 나타났다. 비판적 미디어 이해 능력은 5점 만점에 평균 2.928로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PC 활용 능력의 하위요소, 스마트기기 활용 능력의 하위요소, 인지 욕구, 자아존중감, 비판적 미디어 이해 능력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PC 동영상 활용 능력-인지 욕구’, ‘스마트기기 메시지/인스턴트 메신저 활용 능력-인지 욕구’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관계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 미디어 활용 능력이 비판적 미디어 이해 능력에 미치는 영향

PC 활용 능력, 스마트기기 활용 능력이 비판적 미디어 이해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다중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를 실시하였다.

PC 활용 능력이 비판적 미디어 이해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PC 활용 능력이 비판적 미디어 이해 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F=57.730$, $p=.000$),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24.9%(수정된 R^2 은 24.5%)로 나타났다. Durbin-Watson 통계량은 1.742로 2에 근사한 값을 보이므로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는 모두 10 미만으로 다중공선성에는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PC 동영상 활용 능력($\beta = -.151$, $p=.000$)은 부(-)의 영향을 미치며, PC 인터넷 활용 능력($\beta = .421$, $p=.000$)과 PC 이메일 활용 능력($\beta = .184$, $p=.000$)은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PC 동영상 활용 능력이 높은 경우 비판적 미디어 이해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PC 인터넷 활용 능력과 PC 이메일 활용 능력이 높을 때 비판적 미디어 이해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PC 활용 능력이 비판적 미디어 이해 능력에 미치는 영향

| 종속변수 | 독립변수 | B | S.E. | t | p | VIF | |
|---|--------|--------|-------|--------|--------|-------|-------|
| | (상수) | 1.643 | 0.111 | 14.848 | 0.000 | | |
| 비판적 미디어 이해 능력 | PC 동영상 | -0.101 | 0.029 | -0.151 | -3.544 | 0.000 | 1.684 |
| | PC 인터넷 | 0.310 | 0.039 | 0.421 | 7.924 | 0.000 | 2.617 |
| | PC 이메일 | 0.116 | 0.029 | 0.184 | 3.983 | 0.000 | 1.968 |
| | PC기 타 | 0.018 | 0.028 | 0.033 | 0.631 | 0.529 | 2.482 |
| $F=57.730(p=.000)$, $R^2=.249$, $adjR^2=.245$, Durbin-Watson=1.742 | | | | | | | |

스마트기기 활용 능력이 비판적 미디어 이해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스마트기기 활용 능력이 비판적 미디어 이해 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F=53.730, p=.000$),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23.6%(수정된 R^2 은 23.2%)로 나타났다. Durbin-Watson 통계량은 1.747로 2에 근사한 값을 보이므로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분산 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는 모두 10 미만으로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스마트기기 인터넷 활용 능력($\beta=.248, p=.000$), 스마트기기 이메일 활용 능력($\beta=.109, p=.025$)과 스마트기기 기타 활용 능력($\beta=.213, p=.000$)이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스마트기기 인터넷 활용 능력, 스마트기기 이메일 활용 능력, 스마트기기 기타 활용 능력이 높을 때 비판적 미디어 이해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스마트기기 활용 능력이 비판적 미디어 이해 능력에 미치는 영향

| 종속변수 | 독립변수 | B | S.E. | t | p | VIF | |
|---------------------|--------|--------|-------|--------|--------|-------|-------|
| | (상수) | 1.712 | 0.187 | 9.133 | 0.000 | | |
| 비판적 미디어 이해 능력 | 스마트메시지 | -0.072 | 0.045 | -0.061 | -1.594 | 0.111 | 1.320 |
| | 스마트인터넷 | 0.201 | 0.042 | 0.248 | 4.823 | 0.000 | 2.408 |
| | 스마트이메일 | 0.064 | 0.028 | 0.109 | 2.240 | 0.025 | 2.168 |
| | 스마트 기타 | 0.128 | 0.032 | 0.213 | 3.961 | 0.000 | 2.626 |

$F=53.730(p=.000), R^2=.236, adjR^2=.232, Durbin-Watson=1.747$

3. 매개효과 분석 결과

PC 활용 능력, 스마트기기 활용 능력이 비판적 미디어 이해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인지 욕구 및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 & Kenny(1986)가 제안한 위계적 회귀 분석법을 시행하였다.

1) 인지 욕구의 매개효과

PC 활용 능력이 인지 욕구를 매개변수로 하여 비판적 미디어 이해 능력에 갖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회귀모형은 1단계($F=7.760$, $p<.001$), 2단계($F=57.730$, $p<.001$), 3단계($F=.69.840$, $p<.001$)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단계에서 4.3%(수정된 R^2 은 3.7%), 2단계에서 24.9%(수정된 R^2 은 24.5%), 3단계에서 33.4%(수정된 R^2 은 33.0%)로 나타났다. Durbin-Watson 통계량은 1.784로 2에 근사한 값을 보이므로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분산 팽창지수는 모두 10 미만으로 작게 나타나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회귀계수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1단계에서는 PC 인터넷 활용 능력($\beta=.212$, $p=.000$)이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청소년의 PC 인터넷 활용 능력이 높아질 때 인지 욕구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는 PC 동영상 활용 능력($\beta=-.151$, $p=.000$)은 부(-)적으로 유의하였으며, PC 인터넷 활용 능력($\beta=.421$, $p=.000$), PC 이메일 활용 능력($\beta=.184$, $p=.000$)은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는 인지 욕구가 비판적 미디어 이해 능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beta=.298$, $p=.000$), PC 동영상 활용 능력($\beta=-.151 \rightarrow -.124$), PC 이메일 활용 능력($\beta=.184 \rightarrow .199$)의 영향은 2단계 보다 높아지고, PC 인터넷 활용 능력($\beta=.421 \rightarrow .358$)의 영향은 2단계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 욕구에 PC 인터넷 활용 능력이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며($\beta=.212$, $p=.000$), 비판적 미디어 이해 능력에 대하여 PC 인터넷 활용 능력($\beta=.421 \rightarrow .358$)이 미치는 영향이 3단계보다 2단계에서 낮게 나타나, PC 활용 능력 중 PC 인터넷 활용 능력과 비판적 미디어 이해 능력 사이에서 인지 욕구의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PC 활용 능력과 비판적 미디어 이해 능력 사이의 인지 욕구의 매개효과

| 종속변수 | 독립변수 | B | S.E. | t | p | F | R ² (adjR ²) | |
|---------------------|--------|--------|-------|--------|--------|-----------|--|-------|
| 인지 욕구 | (상수) | 2.389 | 0.107 | 22.341 | 0.000 | 7.760*** | .043 (.037) | |
| | PC 동영상 | -0.052 | 0.028 | -0.091 | -1.885 | | | 0.060 |
| | PC 인터넷 | 0.133 | 0.038 | 0.212 | 3.526 | | | 0.000 |
| | PC 이메일 | -0.008 | 0.028 | -0.016 | -0.300 | | | 0.765 |
| | PC기 타 | 0.027 | 0.027 | 0.059 | 1.009 | | | 0.313 |
| 비판적 미디어 이해 능력 | (상수) | 1.643 | 0.111 | 14.848 | 0.000 | 57.730*** | .249 (.245) | |
| | PC 동영상 | -0.101 | 0.029 | -0.151 | -3.544 | | | 0.000 |
| | PC 인터넷 | 0.310 | 0.039 | 0.421 | 7.924 | | | 0.000 |
| | PC 이메일 | 0.116 | 0.029 | 0.184 | 3.983 | | | 0.000 |
| | PC기 타 | 0.018 | 0.028 | 0.033 | 0.631 | | | 0.529 |
| 비판적 미디어 이해 능력 | (상수) | 0.810 | 0.137 | 5.928 | 0.000 | 69.840*** | .334 (.330) | |
| | PC 동영상 | -0.083 | 0.027 | -0.124 | -3.079 | | | 0.002 |
| | PC 인터넷 | 0.263 | 0.037 | 0.358 | 7.086 | | | 0.000 |
| | PC 이메일 | 0.119 | 0.028 | 0.188 | 4.334 | | | 0.000 |
| | PC기 타 | 0.008 | 0.026 | 0.015 | 0.308 | | | 0.758 |
| | 인지 욕구 | 0.349 | 0.037 | 0.298 | 9.437 | 0.000 | | |

***p<0.001

스마트기기 활용 능력이 인지 욕구를 매개변수로 하여 비판적 미디어 이해 능력에 갖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회귀모형은 1단계(F=7.455, p<.001), 2단계(F=53.730, p<.001), 3단계(F=67.940., p<.001)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으며,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단계에서 4.1%(수정된 R²은 3.6%), 2단계에서 23.6%(수정된 R²은 23.2%), 3단계에서 32.8%(수정된 R²은 32.3%)로 나타났다. Durbin-Watson 통계량은 1.779로 2에 근사한 값을 보이므로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분산 팽창지수는 모두 10 미만으로 작게 나타나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회귀계수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1단계에서는 스마트기기 메시지 활용 능력(=-.128, p=.003)이 부(-)적으로, 스마트기기 인터넷 활용 능력(=.188, p=.001)

이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청소년의 스마트기기 메시지 활용 능력이 높아질 때, 인지 욕구는 낮아지고, 스마트기기 인터넷 활용 능력이 높아질 때 인지 욕구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는 스마트기기 인터넷 활용 능력($\beta=.248, p=.000$), 스마트기기 인터넷 활용 능력($\beta=.248, p=.000$), 스마트기기 이메일 활용 능력($\beta=.109, p=.025$), 스마트기기 기타 활용 능력($\beta=.213, p=.000$)이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는 인지 욕구가 비판적 미디어 이해 능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beta=.310, p=.000$), 스마트기기 인터넷 활용 능력($\beta=.248 \rightarrow .189$), 스마트기기 이메일 활용 능력($\beta=.109 \rightarrow .101$), 스마트기기 기타 활용 능력($\beta=.213 \rightarrow .203$)의 영향은 2단계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 욕구에 스마트기기 인터넷 활용 능력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며($\beta=.188, p=.001$), 비판적 미디어 이해 능력에 대하여 스마트기기 인터넷 활용 능력($\beta=.248 \rightarrow .189$)이 미치는 영향이 3단계보다 2단계에서 낮게 나타나, 스마트기기 활용 능력 중 스마트기기 인터넷 활용 능력과 비판적 미디어 이해 능력 사이에서 인지 욕구의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스마트기기 활용 능력과 비판적 미디어 이해 능력 사이의 인지 욕구의 매개효과

| 종속변수 | 독립변수 | B | S.E. | t | p | F | R ² (adjR ²) | |
|------------------------|--------|--------|-------|--------|--------|-----------|-------------------------------------|-------|
| 인지 욕구 | (상수) | 2.704 | 0.180 | 15.050 | 0.000 | 7.455*** | .041(.036) | |
| | 스마트메시지 | -0.130 | 0.043 | -0.128 | -3.013 | | | 0.003 |
| | 스마트인터넷 | 0.131 | 0.040 | 0.188 | 3.272 | | | 0.001 |
| | 스마트이메일 | 0.013 | 0.027 | 0.026 | 0.476 | | | 0.634 |
| | 스마트 기타 | 0.017 | 0.031 | 0.032 | 0.535 | | | 0.593 |
| 비판적 미디어 이해 능력 | (상수) | 1.712 | 0.187 | 9.133 | 0.000 | 53.730*** | .236(.232) | |
| | 스마트메시지 | -0.072 | 0.045 | -0.061 | -1.594 | | | 0.111 |
| | 스마트인터넷 | 0.201 | 0.042 | 0.248 | 4.823 | | | 0.000 |
| | 스마트이메일 | 0.064 | 0.028 | 0.109 | 2.240 | | | 0.025 |
| | 스마트 기타 | 0.128 | 0.032 | 0.213 | 3.961 | | | 0.000 |
| 비판적 미디어 이해 능력 | (상수) | 0.731 | 0.202 | 3.611 | 0.000 | 67.940*** | .328(.323) | |
| | 스마트메시지 | -0.025 | 0.042 | -0.021 | -0.578 | | | 0.563 |
| | 스마트인터넷 | 0.154 | 0.039 | 0.189 | 3.898 | | | 0.000 |
| | 스마트이메일 | 0.059 | 0.027 | 0.101 | 2.210 | | | 0.027 |
| | 스마트 기타 | 0.122 | 0.030 | 0.203 | 4.022 | | | 0.000 |
| | 인지 욕구 | 0.363 | 0.037 | 0.310 | 9.776 | 0.000 | | |

***p<0.001

2)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PC 활용 능력이 자아존중감을 매개변수로 하여 비판적 미디어 이해 능력에 갖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회귀모형은 1단계(F=11.308, p<.001), 2단계(F=57.730, p<.001), 3단계(F=49.797, p<.001)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단계에서 6.1%(수정된 R2은 5.6%), 2단계에서 24.9%(수정된 R2은 24.5%), 3단계에서 26.3%(수정된 R2은 25.8%)로 나타났다. Durbin-Watson 통계량은 1.765로 2에 근사한 값을 보이므로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분산 팽창지수는 모두 10 미만으로 작게 나타나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회귀계수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1단계에서는 PC 이메일 활용 능력(β=.219, p=.000)이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청소년의 PC 이메일 활용 능력이

높아질 때, 자아존중감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는 PC 동영상 활용 능력(=-.151, p=.000)은 부(-)적으로 유의하였으며, PC 인터넷 활용 능력(=.421, p=.000), PC 이메일 활용 능력(=.184, p=.000)은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는 자아존중감이 비판적 미디어 이해 능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123, p=.000), PC 동영상 활용 능력(=-.151→-.159), PC 인터넷 활용 능력(=.421→.412), PC 이메일 활용 능력(=.184→.157)의 영향은 2단계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에 PC 이메일 활용 능력이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며(=.219, p=.000), 비판적 미디어 이해 능력에 대하여 PC 이메일 활용 능력(=.184→.157)이 미치는 영향이 3단계보다 2단계에서 낮게 나타나, PC 활용 능력 중 PC 이메일 활용 능력과 비판적 미디어 이해 능력 사이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PC 활용 능력과 비판적 미디어 이해 능력 사이의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 종속변수 | 독립변수 | B | S.E. | t | p | F | R ² (adjR ²) | |
|------------------------|--------|--------|-------|--------|--------|-----------|-------------------------------------|-------|
| 자아 존중감 | (상수) | 3.022 | 0.088 | 34.154 | 0.000 | 11.308*** | .061 (.056) | |
| | PC 동영상 | 0.030 | 0.023 | 0.062 | 1.300 | | | 0.194 |
| | PC 인터넷 | 0.038 | 0.031 | 0.072 | 1.213 | | | 0.226 |
| | PC 이메일 | 0.099 | 0.023 | 0.219 | 4.241 | | | 0.000 |
| | PC 기타 | -0.039 | 0.022 | -0.102 | -1.756 | | | 0.080 |
| 비판적 미디어 이해 능력 | (상수) | 1.643 | 0.111 | 14.848 | 0.000 | 57.730*** | .249 (.245) | |
| | PC 동영상 | -0.101 | 0.029 | -0.151 | -3.544 | | | 0.000 |
| | PC 인터넷 | 0.310 | 0.039 | 0.421 | 7.924 | | | 0.000 |
| | PC 이메일 | 0.116 | 0.029 | 0.184 | 3.983 | | | 0.000 |
| | PC 기타 | 0.018 | 0.028 | 0.033 | 0.631 | | | 0.529 |
| 비판적 미디어 이해 능력 | (상수) | 1.122 | 0.179 | 6.253 | 0.000 | 49.707*** | .263 (.258) | |
| | PC 동영상 | -0.106 | 0.028 | -0.159 | -3.752 | | | 0.000 |
| | PC 인터넷 | 0.303 | 0.039 | 0.412 | 7.817 | | | 0.000 |
| | PC 이메일 | 0.099 | 0.029 | 0.157 | 3.385 | | | 0.001 |
| | PC 기타 | 0.025 | 0.028 | 0.045 | 0.878 | | | 0.380 |
| | 자아존중감 | 0.172 | 0.047 | 0.123 | 3.671 | 0.000 | | |

***p<0.001

스마트기기 활용 능력이 자아존중감을 매개변수로 하여 비판적 미디어 이해 능력에 갖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회귀모형은 1단계($F=9.207$, $p<.001$), 2단계($F=53.730$, $p<.001$), 3단계($F=47.289$, $p<.001$)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단계에서 5.0%(수정된 R^2 은 4.5%), 2단계에서 23.6%(수정된 R^2 은 23.2%), 3단계에서 25.4%(수정된 R^2 은 24.8%)로 나타났다. Durbin-Watson 통계량은 1.774로 2에 근사한 값을 보이므로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분산 팽창지수는 모두 10 미만으로 작게 나타나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회귀계수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1단계에서는 스마트기기 메시지 활용 능력($\beta=.124$, $p=.004$), 스마트기기 이메일 활용 능력($\beta=.139$, $p=.011$)이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청소년의 스마트기기 메시지 활용 능력, 스마트기기 이메일 활용 능력이 높아질 때 자아존중감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는 스마트기기 인터넷 활용 능력($\beta=.248$, $p=.000$), 스마트기기 인터넷 활용 능력($\beta=.248$, $p=.000$), 스마트기기 이메일 활용 능력($\beta=.109$, $p=.025$), 스마트기기 기타 활용 능력($\beta=.213$, $p=.000$)이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는 자아존중감이 비판적 미디어 이해 능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beta=.137$, $p=.000$), 스마트기기 인터넷 활용 능력($\beta=.248 \rightarrow .252$)의 영향은 2단계보다 높아지고, 스마트기기 이메일 활용 능력($\beta=.109 \rightarrow .090$), 스마트기기 기타 활용 능력($\beta=.213 \rightarrow .208$)의 영향은 2단계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에 스마트기기 이메일 활용 능력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며($\beta=.139$, $p=.011$), 비판적 미디어 이해 능력에 대하여 스마트기기 이메일 활용 능력($\beta=.109 \rightarrow .090$)이 미치는 영향이 3단계보다 2단계에서 낮게 나타나, 스마트기기 활용 능력 중 스마트기기 이메일 활용 능력과 비판적 미디어 이해 능력 사이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스마트기기 활용 능력과 비판적 미디어 이해 능력 사이의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 종속변수 | 독립변수 | B | S.E. | t | p | F | R ² (adjR ²) | |
|------------------------|--------|--------|-------|--------|--------|-----------|-------------------------------------|-------|
| 자아 존중감 | (상수) | 2.843 | 0.149 | 19.035 | 0.000 | 9.207*** | .050(.045) | |
| | 스마트메시지 | 0.104 | 0.036 | 0.124 | 2.914 | | | 0.004 |
| | 스마트인터넷 | -0.018 | 0.033 | -0.031 | -0.533 | | | 0.594 |
| | 스마트이메일 | 0.058 | 0.023 | 0.139 | 2.556 | | | 0.011 |
| | 스마트 기타 | 0.015 | 0.026 | 0.035 | 0.583 | | | 0.560 |
| 비판적 미디어 이해 능력 | (상수) | 1.712 | 0.187 | 9.133 | 0.000 | 53.730*** | .236(.232) | |
| | 스마트메시지 | -0.072 | 0.045 | -0.061 | -1.594 | | | 0.111 |
| | 스마트인터넷 | 0.201 | 0.042 | 0.248 | 4.823 | | | 0.000 |
| | 스마트이메일 | 0.064 | 0.028 | 0.109 | 2.240 | | | 0.025 |
| | 스마트 기타 | 0.128 | 0.032 | 0.213 | 3.961 | | | 0.000 |
| 비판적 미디어 이해 능력 | (상수) | 1.165 | 0.229 | 5.100 | 0.000 | 47.289*** | .254(.248) | |
| | 스마트메시지 | -0.092 | 0.045 | -0.078 | -2.050 | | | 0.041 |
| | 스마트인터넷 | 0.205 | 0.041 | 0.252 | 4.958 | | | 0.000 |
| | 스마트이메일 | 0.052 | 0.028 | 0.090 | 1.861 | | | 0.063 |
| | 스마트 기타 | 0.125 | 0.032 | 0.208 | 3.914 | | | 0.000 |
| | 자아존중감 | 0.192 | 0.047 | 0.137 | 4.085 | 0.000 | | |

***p<0.001

V. 요약 및 결론, 제언

1. 요약

이 연구는 다양한 미디어에 노출되고 지속해서 정보를 수용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올바른 정보를 수용하고 건전한 가치관 확립할 수 있도록 소년의 미디어 활용 능력, 자아존중감, 인지 욕구가 비판적 미디어 이해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수행하였다.

한국미디어패널조사 2020의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PC 활용 능력과 스마트기기 활용 능력은 청소년의 비판적 미디어 활용 능력

에 영향을 준다. PC 활용 능력 중 PC 동영상 활용 능력($=-.151, p=.000$)은 부(-)의 영향을 미치며, PC 인터넷 활용 능력($=.421, p=.000$)과 PC 이메일 활용 능력($=.184, p=.000$)은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24.9%(수정된 R^2 은 24.5%)로 나타났다. 스마트기기 인터넷 활용 능력($=.248, p=.000$), 스마트기기 이메일 활용 능력($=.109, p=.025$)과 스마트기기 기타 활용 능력($=.213, p=.000$)이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23.6%(수정된 R^2 은 23.3%)로 나타났다. PC와 스마트기기 활용 능력은 비판적 미디어 이해 능력에 대체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지만, PC 기타 활용 능력과 스마트기기 메시지 활용 능력은 비판적 미디어 이해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PC 동영상 활용 능력은 비판적 미디어 이해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C 동영상 활용 능력이 비판적 미디어 이해 능력에 부정적인 이유는 최근 PC 활용 능력에 관한 연구는 적지만 스마트기기 활용 행태에 관한 연구를 통해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다양한 연구에서 스마트기기 고립적으로 사용하면 학업태도, 학교생활, 스마트기기 의존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이하나, 양승목, 2018; 김다솔, 2020; 장윤재, 2020)와 같이 PC 동영상을 고립적으로 이용할 때 비판적 미디어 이해 능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 성인과 다르게 청소년은 확고한 도식이 없으므로 뉴스를 접할 때 확증 편향을 갖는 것이 아니라 도식이 수정된다는 연구(안도현, 2020)와 같이 동영상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접할수록 도식의 수정이 자주 일어나 비판적 미디어 이해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둘째, PC 인터넷 활용 능력과 비판적 미디어 이해 능력 사이에서, 스마트기기 인터넷 활용 능력과 비판적 미디어 이해 능력 사이에서 인지 욕구의 매개효과는 유의미하다. 다시 말해 PC나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인터넷 활용 능력이 높은 학생들이 인지 욕구가 높아질 때 비판적 미디어 이해 능력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인지 욕구가 높은 사람들이 새로운 생각과 정보를 수용

하는 데 적극적이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정보는 적극적으로 차단한다는 정만수(2014)의 연구 결과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PC 활용 능력 중 PC 이메일 활용 능력과 비판적 미디어 이해 능력 사이에서, 스마트기기 이메일 활용 능력과 비판적 미디어 이해 능력 사이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PC와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이메일 활용 능력이 높은 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이 높아질 때 비판적 미디어 이해 능력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메일은 주로 개인과 개인 간의 정보 교환수단이므로 다른 매체보다 관계 중심적이다. 이는 이메일 활용 능력이 높은 학생들은 관계 중심적인 사용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김다솔(2020)과 장운재(2020)의 연구에서 관계 중심적인 스마트기기 활용이 학습 태도와 학교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와 관련이 있다. 또, 이메일은 개인적인 정보 교환 수단이라는 점에서 SNS와 공통된 특성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자아존중감이 낮은 대학생들은 SNS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연구(최정화, 2021)와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모든 일에 적극적이고 성취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배경의, 강양희, 2007)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결론

이 연구에서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들의 비판적 미디어 이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PC 활용 능력과 스마트기기 활용 능력을 키워줘야 하지만, 고립적 사용을 예방해야 한다. PC와 스마트기기가 다양한 상호작용의 도구가 되도록 기능적인 교육을 넘어서 PC와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교육이 요구된다.

둘째, PC와 스마트기기를 통해 정보에 접근할 때는 인지 욕구를 높일 수 있는 교육이 요구되며, PC와 스마트기기를 통해 관계를 형성하는 데는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이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학생들이 다양한 상호작용을 활용할 수 있는 미디어 활용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교과교육 중심으로 종합해보면 실과(기술·가정)교과와 정보 교과와 같이 PC, 스마트기기 활용과 직접 관련이 있는 교과목에서는 PC 활용 능력과 스마트 기기 활용 능력을 높일 수 있는 교육과 동시에 인지 욕구를 높일 수 있는 문제 해결학습, 프로젝트 학습 등을 수행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모든 과목은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다양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PC와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협동학습 등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3. 제언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이 연구는 패널연구를 바탕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연구의 대상과 문항이 한정되어 있다. 청소년의 미디어 활용 능력, 인지욕구, 자아존중감, 비판적 미디어 이해능력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좀 더 정교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패널연구의 특성상 시계열 연구가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좋은 표본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다양한 연구가 수행될 수 있다. 또,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이 발표된 상황에서 이 연구결과를 통해 청소년의 올바른 미디어 사용을 위한 노력이 각 교과 각론에 적절히 반영되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 교육부 (2015a).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5]. 세종: 교육부.
- 교육부 (2015b). **도덕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6]. 세종: 교육부.
- 교육부 (2015c). **미술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13]. 세종: 교육부.
- 교육부 (2018). **사회과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별책7]. 세종: 교육부.
- 교육부 (2020). **실과(기술·가정)/정보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20-236호 [별책10]
- 김경희·김광재·이숙정 (2017). **미디어 리터러시 지수 개발 및 지역별 격차 측정 조사**. 경기: 한국방송통신위원회.
- 김다솔·최완식 (2016). 중학교 기술교과 정보통신기술영역의 내용체계 구명. **한국기술교육학회지**, 16(1), 1-22.
- 김다솔 (2020). 중학생의 스마트폰 사용 습관에 따른 군집 유형과 학업태도의 관계. **교육발전**, 40(2), 241-259.
- 김영미, 박윤조. (2021). 초등학교 아동의 행복감과 자아존중감이 미디어중독에 미치는 영향: 학교적응의 매개효과.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2(7), 480-487.
- 김현진·김현영·김은영·최미애 (2019). **민주시민육성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방안 연구**. 대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박희량. (2010). 인지욕구 수준과 성별이 모바일 광고에 미치는 영향. **OOH광고학연구**, 7(3), 147-170.
- 배경의·강양희 (2007). 부산지역 남자 고등학생의 성태도, 성행동 및 자아존중감. **부모자녀건강학회지**, 10(1), 36-47.
- 심미선 (2019). 자아존중감과 미디어 이용간의 관계 연구. **미디어와 인격권**, 5(2), 179-210.
- 안도현 (2020). 디지털 가짜뉴스에 대한 청소년의 확증 편향 연구: 경북지역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20(1), 77-105.
- 유두련. (2014). 개인자아존중감과 집단자아존중감에 따른 친환경태도와처분행동에 관한 연구- 대학생 집단을 중심으로 -. **소비자문제연구**, 45(3), 183-206.
- 이석용·정이상. (2010). 웹 2.0 시대의 SNS (Social Network Service) 에 관한 고찰. **경영과 정보연구**, 29(4), 143-167.
- 이용준·권이은 (2020). Post-truth 시대의 가짜 뉴스와 리터러시 교육의 중점. **리터러시 연구**, 11(6), 101-134.
- 이은숙, 이경순. (2018). 소셜미디어 중독경향성과 자아존중감 관계에서 사회불안의 매개효과. **교육공학연구**, 34(3), 495-523.

- 이주형, 김기연 (2021). 노인의 교육 수준이 비판적 미디어 이해 능력에 미치는 영향 - 인지욕구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리터러시연구**, 12(5), 443-474.
- 이현경 (2021). **초·중등 합쳐 51시간 절대 부족...“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 ‘정보’ 독립 교과 편성해야**. 동아사이언스, 2021년 3월 23일 기사.
- 이하나·양승목 (2018).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도와 영향 변인의 관계에 대한 학령 및 성별 비교 분석: 부모의 양육태도,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 스마트폰 이용 용도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62(5), 175-214.
- 정만수 (2014). 연령과 인지욕구가 스마트폰 사용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스마트폰 의존도, 앱 활용도, 앱 호감도, 사생활침해 우려, 광고회피행동을 중심으로. **광고학연구**, 25(6), 105-133.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21a). **2021년 미디어 통계 수첩**. 충북: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21b). **2022 한국미디어패널조사**. 충북: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장은주 (2020).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미디어교육 관련 성취기준 분석 연구. **새국어교육**, 125, 39-68.
- 장윤재·김미라 (2020). 참여적 뉴스 이용의 효과: 메신저, SNS를 통한 뉴스 이용과 뉴스 및 언론인에 대한 신뢰. **한국언론정보학보**, 99, 245-274.
- 장재훈 (2021). **거세지는 ‘기술’ ‘가정’ 분리 요구 .. 기술교육단체, 교육부에 독립 건의**. 에듀프레스. 2021년 8월 17일 기사
- 최인호, 염정윤, 김류원, 정세훈. (2018). 소득, 연령, 인지욕구가 뉴미디어 리터러시에 미치는 영향과 연령과 인지욕구의 조절효과.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35(2), 181-221.
- 최정화 (2021). 대학생들의 SNS 이용과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에서 SNS 친구들의 반응성 인식 및 자아존중감의 조절 효과. **디지털융복합연구**, 19(5), 433-442.
- 최재봉 (2019). **포노 사피엔스**. 서울: 샘앤파커스.
- 허윤철 (2020). 뉴스 리터러시가 가짜뉴스의 영향력 지각과 규제 태도에 미치는 영향: 가짜뉴스 범위 인식의 조절 효과. **한국언론정보학보**, 101, 506-534.
- 홍남희 (2021). 미디어 리터러시 담론과 아동, 청소년: 미디어 이용 취약층에서 일탈의 프로슈머까지. **한국언론정보학보**, 107, 149-180.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 - 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

ABSTRACT

Mediating Effects of Self-Respect and Cognitive Need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Media Utilization and Critical Media Understanding¹⁾

Dasol Kim

Daejeon Saemirae Middle School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effects of adolescents' media literacy, self-esteem, and cognitive related to on critical media understanding ability using data from the Korea Media Panel Survey 2020. As a result of the study, PC literacy and smart device literacy influenced adolescents' critical media literacy. The mediating effect of cognitive needs between Internet literacy and critical media understanding ability using PCs and smart devices was significant, and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between email literacy using PCs and smart devices and critical media understanding ability was significant. Therefore, to improve adolescents' critical media understanding ability, it is necessary to educate them to use PCs and smart devices as tools for interaction. To this end, it is desirable for information and technology subjects to focus on media literacy to increase cognitive needs, and for other subjects, cooperative learning using media is desirable.

Keywords: *Korean Media Panel Survey, cognitive desire, self-esteem, critical media understanding skills.*

논문투고일자: 2021.12.03.

논문심사일자: 2022.04.22.

게재확정일자: 2022.04.22.

1) This study is a revised and supplemented thesis presented at the 9th Media Panel Conference held by the Institute fo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Policy.